

# 미국도 부동산만한 게 없다? 다양해진 재테크 서적들



《부자 아빠의 경쟁사회로부터의 탈출》  
본문. 어린이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새롭게 기획한  
책이다.

글 | 허선

## 주식시장붕괴? 소비지출 감소 여파, 부동산 관련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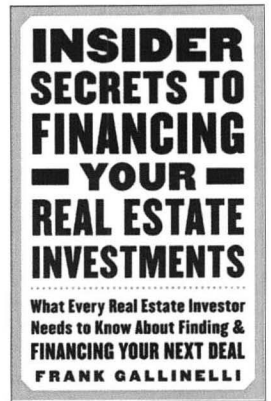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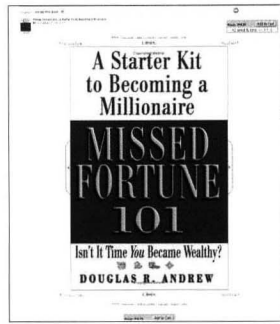
몇 해 전만 해도 출판계는 부동산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붕괴, 소비자 지출의 저조 등으로 요즘 부동산 투자만큼 가치가 큰 것은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자 출판계도 서로 앞다투어 부동산 관련 책들을 출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맥그로힐 출판사는 부동산 서적을 다루는 것이야말로 투자라는 입장에서 연이어 부동산 서적을 출간하고 있다. 적은 돈으로 노후한 집을 구입하여 부동산 재벌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제이 디사마의 《부동산, 작게 시작하여 큰 이익을 내라 Start Small, Profit Big in Real Estate》, 안전한 고수익 투자를 통해 부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리 엘드레드의 《상가에 투자하라 Investing in Commercial Real Estate》, 투자자들이 부동산 구입, 대출, 재판매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말해주는 프랭크 갤리넬리의 《부동산 투자에 자금조달하는 내부비밀 Insider Secrets to Financing Your Real Estate Investments》 등이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 세금 담보권, 다가구 부동산 등 좀더 세부적인 출판물들도 출간되고 있다. 아마존 출판사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서류 견본과 정보를 모은 《집주인이 알아야 할 재무 툴킷 The Landlord's Financial Tool Kit》,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독자들에게 위치선정, 대출, 시장 평가, 계약협상 등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쉽게 하는 부동산 투자 Real Estate Investing Made Simple》를 출간하였다. 디어본 트레이즈 출판사는 제임스 G. 벅크스의 《상속을 통한 부의 창출 Creating Wealth Through Probate》과 그레고리 위의 《다가구 부동산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이라 Make More Money Investing in Multi-units》를 출간할 예정이다.

## 어린이부터 일반인까지 겨냥한 경제서

이제 막 돈의 개념을 알기 시작한 어린이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경제서가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어린이 경제서 《부자 아빠의 경쟁사회로부터의 탈출 Rich Dad's Escape from the Rat Race》은 그동안 경제서 분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온 로버트 기요사키와 샤론 네취터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Rich Dad, Poor Dad》를 어린 독자들에게 맞게 기획한 책으로 거북이와 쥐를 주인공으로 거북이가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를 코믹북 스타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을 위한 책으로, 라디오 경제관련 토크쇼 진행자 클락 하워드와 마크 멜츠너가 연령별 돈의 가치에 대한 조언,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한 조언 등 그동안 토크쇼를 통해 모아진 자료를 엮은 《클락 똑똑한 부모, 클락 똑똑한 아이 Clark Smart Parents, Clark Smart Kids》가 하이퍼리온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크레딧 카드 지출을 조절하고, 적당한 차량을 운행하고, 핸드폰요금을 줄이면서 여전히 쇼핑을 즐기고 밤에 클럽도 놀러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경제서 《돈에 대한 여자의 가이드 A Girl's Guide to Money》도 출간 예정이다. 또한 빗더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재테크 서적들.  
특히 부동산은 미국인 재테크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미로 고민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지난해 발간된 진 채츠의 《지불하라! 하루에 10불로 부채에서 재산 모으기까지 Pay It Down! From Debt to Wealth on \$10 a day》는 많은 미디어의 주목과 더불어 두터운 독자층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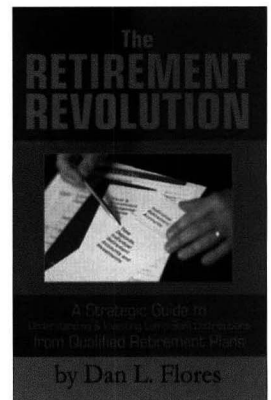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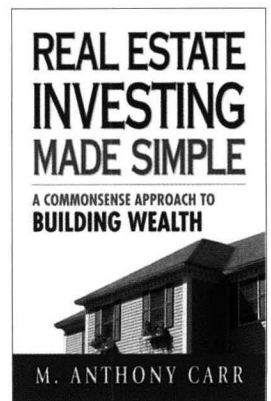
이처럼 기본에 충실한 경제서가 있는가 하면, 나아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제서가 있다.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지침서 《놓쳐버린 행운 101 Missed Fortune 101》은 통념적으로 알려진 연금가입, 보험가입, 모기지의 조기상환 등과 같은 구태의연한 내용보다는 새로운 통찰력과 각도에서 사람들이 재정적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조언서라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은퇴 혁명’ 내건 다양한 은퇴 관련서

아무리 빛이 없다고 해도 적절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했다면 재정적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미국인들 중 65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벌어야만 하는 노인들이 수두룩하고,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두둑한 포트폴리오보다는 완전한 인생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점점 더 많은 경제서들이 은퇴 후 창업을 다루고 있다. 새롭게 다시 한번 무언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은퇴혁명 The

Retirement Revolution》, 은퇴 후 어떻게 돈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기본 개념의 조언을 담은 《늦게 시작했지만 부자로 마무리해라 Start Late, Finish Rich》, 돈에 관심을 가진 베이비 부머 세대를 겨냥한 202 시리즈물로 《은퇴 수입에 큰 수익을 추가할 수 있는 202가지 방법 202 Ways You Can Supplement Your Retirement Income with Big Profits》이 출간될 예정이다.

한국 출판계에도 경제에 대한 독자들의 큰 관심으로 다양한 경제서들이 발간되고 있다. ‘몇 억 모으기’,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등 일반인들을 위한 경제서부터 어린이에게 쉽게 경제개념을 가르쳐주는 어린이 경제도서까지 폭넓게 경제도서의 장르를 넓히고 있다. 이제 한국의 출판계도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은퇴를 준비하는 중년이나, 이미 은퇴를 한 노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적들을 발간하기를 기대해 본다. ☞



● **이 글을 쓴 허선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을 전공했고 2003년 미국에서 PMA Publishing university 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평화출판사와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